

아름답고 장중한 수제천 선율 선보여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ㄷ·ㄹ하다리서 '수제천 해설 있는 음악회' 진행

정읍시 사)수제천보존회(이사장 이영자)는 지난 18일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 ㄷ·ㄹ하다리에서 '수제천 해설 있는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공연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주고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버스킹공연으로 진행됐다.

수제천보존회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람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증상을 확인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날 공연에는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가족 단위 관람객,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 등이 참석해 아름답고 장중한 수제천의 선율을 감상했다.

특히, ㄷ·ㄹ하다리 주위가 어두워지면서 점등된 화려한 조명이 수제천의 선율과 함께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로해주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공연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제천은 정읍이라는 지역명을 가



정읍시 사)수제천보존회(이사장 이영자)는 지난 18일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 ㄷ·ㄹ하다리에서 '수제천 해설 있는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진 유일한 전통 기악곡으로 수명이 하늘처럼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궁중 의례와 연향에 사용되고 있다.

수제천보존회는 1996년 수제천 연주 교실을 시작으로 현재 정기연주회와 국제민족

음악교류제, 전국 각지 초청공연,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공연, 동화농민혁명 기념제, 정읍시 문화제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수레마당 예술봉사단, 군산 호수공원에서 효콘서트

시민 위로 · 국악저변확대 위한 정기공연 일환으로 판소리 · 전통무 등 선보여

사)수레마당 예술봉사단(단장 양정례)은 최근 군산 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공연장에서 효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수레마당 예술봉사단은 단장인 향토 국악인 양정례씨가 가르치는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은파국악연구원생과 동인무대 연극인등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설립한 봉사단체로서, 예술나눔을 통해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예술봉사와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봉사단이다.

2011년 설립하고, 2013년 11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이후 매년 정기공연과 군산시 지원봉사센터 늘푸른 축제, 진포예술제, 명산시장 및 고운 야시장, 은파물빛다리 공연 등 지역 축제

및 각종 행사장에서의 공연과 우리들 너스름 요양원, 정다운요양원, 소록도, 서천요양원 등 여러 요양원에서 공연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 하면서 우리 국악보급 및 저변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날 군산은파호수공원내 물빛다리광장 야외 공연장에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국악저변확대를 위해 정기공연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효콘서트에는 우리기악에 관심있는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곳 호수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판소리, 전통무 등 다양한 장르의 우리기악의 흥취에 흠뻑 빠지게 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무형문화재 공예품 무료 대여 은행 운영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피모 · 섬유 · 금속 · 악기 공예 등 7개 분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가치의 일상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가 제작한 작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전승 공예품 은행'을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여 가능한 품목은 ▲피모공예(갓 · 망건 등) ▲섬유공예(매듭 · 자수 · 누비 등) ▲금속공예(조각 · 두석 등) ▲도자 · 옥 · 석공예(옹기 · 옥 등) ▲목칠공예(나전 · 소목 등) ▲지 · 단청 · 불교(단청, 불화 등) ▲악기 공예(북 · 가야금 등) 등 크게 7개 분야다.

특히 악기 공예 중 장고 · 가야금 · 거문고 등은 국악원, 국악고, 국악 전공 대학에서 실습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북 · 편종 · 편경 등은 공공청사 로비나 회

의실에 오픈 전시로 활용해 방문객과 일반인들이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K-무형문화의 멋과 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대여 대상은 공공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및 교육기관, 재외 공관 및 해외문화원, 기업 등 전승 공예품을 활용 · 관리가 가능한 공간을 갖춘 기관이면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포장 운송료와 보험비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전승 공예품 은행에는 5331점 중 3454점이 국내외 70여개 기관에서 대여 · 활용 중이며, 대여 가능한 작품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 공예품 은행 대여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정읍시립농악단, 토요일 상설공연 본격 시작

11월까지 매달 첫째 · 셋째 주 토요일 버스킹식 공연

정읍시립농악단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버스킹식 농악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하루 2회 열리며, 오후 1시 정읍 쌍화차거리와 오후 4시 정촌가요특구에서 펼쳐진다.



이번 상설 공연은 산업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정읍농악 연행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 받을 문화상품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정읍농악 시연과 함께 사물놀이와 비나놀이, 사지춤, 12발 상모, 민요 등 전통 연희마당을 선보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 야외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련해 정읍시립농악단은 지난 19일 첫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농악단은 오후 1시에 쌍화차거리에서 길놀이와 전통 연희마당을 선보인 후, 오후 4시에는 정촌가요특구로 무대를 옮겨 정읍농악과 전통 연희마당을 선보였다.

특히, 정촌가요특구에서는 공연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농악기와 연희 체험을 진행해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공연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연내용의 다양성을 통해 더욱 사랑받는 토요일 상설 공연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삶 담긴 책자 발간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글로 엮은 책자인 '나를 응원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 책자는 지난 3월부터 결혼이주여성 10명이 심상(이미지) 시치료 기법을 활용한 예술 · 문화치료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함께 나누고 싶은 솔직한 이야기들을 모아 대화 형식의 글로 만들어졌다.

이 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겪은 문화갈등 사례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시민들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를 응원해' 책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nl.go.kr)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이지훈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이 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내적 치유와 내적 강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명애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치유 글쓰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소통하고 이웃과 함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책자 발간으로 큰 성취감을 얻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11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2021년 6월 26일 JL매직센터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후원: 전주매일신문사, 전주시

**본 행사는 전주시의 보조금으로
진행됩니다.